■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15-444.
http://doi.org/10.17948/kcs.2020..86.415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

—협력공동체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문명사적 탐색—

조대엽(趙大燁)**

목 차

1. 서론: 협력의 사회학
2. 문명의 순환: 집중과 분산, 그리고 협력
3. 제 1의 협력문명과 작업협력의 시대
4. 제 2의 협력문명과 종교협력의 시대
5. 제 3의 협력문명과 이념협력의 시대
6. 결론: 제 4의 협력문명과 '가치협력'의 전망

국문초록

이 글은 인류가 협력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원에 대해 문명사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력문명의 주요한 사회적 기원은 노동과 종교와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는 문명사적으로 작업협력, 종교협력, 이념협력의 시대를 거친 것이다. 새로운 협력문명은 기존의 협력질서가 해체되면서 나타났다. 당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배제와 질곡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협력문명은 태동했다. 작업협력문명, 종교협력문명, 이념협력문명은 이 같은 문명사적 순환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해체되었다. 협력문명의 순환은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는 식의 순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협력문명이 극

*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단적으로 변형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약화된 가운데 새로운 협력문명이 추가적이고 누적적으로 전개되었다. 제 3의 협력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협력의 시대 이후 우리 시대가 열어야 할 제 4의 협력문명으로 '가치협력'을 전망할 수 있다.

주제어: 협력문명, 작업협력, 종교협력, 이념협력, 가치협력.

1. 서론: 협력의 사회학

2019년은 한국사회에서 민주공화제가 채택된 지 백년이 된 해다. 비록 엄혹한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임시정부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민주공화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와 정체가 바뀐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황제의 '신민'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백년의 시민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백년시민이 미래백년을 꿈꿔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사회는 개인화와 해체화의 거대경향 속에서 대결과 적대가 중첩된 첨예한 분열의 시간을 맞고 있다. 그 근저에는 심각한 양극의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백년시민이 겪는 분열의 현실이 우리 시대를 견딜 수 없는 결핍과 고통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백년의 시간은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식민의 시대'를 기점으로 한다. 한국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수탈의 시기였다. 해방 후 미군정과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좌와 우로 나뉘어 적대하는 '이념의 시대'를 맞았다. 냉전이념에 기댄 엄혹한 독재를 거치면서도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삶의 내면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외환위기로 밀려왔다. 한국사회는 효율과 경쟁과 이익만이 추구되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무한궤도에 올랐고 이른바 악마의 맷돌 속으로 빨려들었다. '욕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친기업과 친시장 정책을 지향하는 두 번의 정부는 시장의 욕망을 탐욕으로 부추기며 이른바 갑질과 가학의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정치적 적대와 경제적 탐욕과 문화적 가학이 중첩된 '분열의 시대'를 맞았다.[1] 고도의 불평등

구조를 내장한 반정치적 분열과 해체의 징후가 대한민국 백년시민의 시대적 결핍이자 역사적 고통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열의 혼돈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백년시민의 시대 과제가 되었다.

백년시민의 시대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같은 분열의 현실이 누적된 역사적 과정이 한국사회에 국한된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분열과 해체의 징후가 식민과 냉전과 신자유주의의 누적된 효과라면 식민의 시대와 냉전의 시대, 신자유주의적 욕망의 시대는 세계사적이고 지구적인 거대경향에 기원을 둔 한국적 응축이다. 더 나아가 적대와 대결과 경쟁을 주도하는 지구적 거대경향은 인류문명사의 초거대 경향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류문명은 사유재산의 출현 이후 자원과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쌓이는 문명의 집중화경향을 드러냈다. 우리 시대에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분열과 해체적 징후의 현재적 기원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경향이다.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거대경향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집중문명현상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과 합병, 이익과 효율, 개인화와 해체화의 경향을 고도화시켰다. 최근에는 국가 간에도 이 같은 경향이 신냉전과 신국가주의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반복되는 문명의 집중화경향이 극단적으로 고도화되는 시간은 인류사회의 취약한 지역과 취약한 계층에게 견딜 수 없는 결핍과 고통의 시간을 맞게 한다. 인류의 문명사는 극단의 집중화와 불평등, 견딜 수 없는 결핍의 시간 속에서 협력의 열망을 키우고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문명의 분산화라는 새로운 거대경향을 잉태하곤 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집중화 경향을 넘어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성,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절실하고도 긴박한 문명사적 전환의 시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기업시민, 사회생태주의 정치,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운동 등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운동은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문명의 분산화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1) 조대엽, 「그릇 굽는 도공의 마음으로」, 『경사연 리포트』 5월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공공성의 복원을 갈망하는 협력과 연대의 문명은 우리 시대 인류의 현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집중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으로서의 분산문명에는 '드러나지 않은 인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감의 인류사'가 반영되어 있다.[2] 문명의 분산화경향에는 인류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류의 공감능력이 구조화된 '협력의 인류사'가 내재되어 있고, 이 같은 협력의 인류사야말로 새로운 인류문명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경쟁, 분쟁은 상존하는 요소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는 현재에 고착된 통념과 기능주의 사회학의 나태함을 뛰어 넘어, 인류사에 내재된 협력의 유전자를 드러냄으로써 '협력적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망하는 것은 당면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거대한 갈망'에 공감과 협력의 사회학이 호응해야 한다. 문명의 사회학이 인류협력의 유전자를 찾는 사회학적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백년의 시민사회에 놓인 미래 백년의 과제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인류문명의 공동체를 구성한 서로 다른 협력의 요소를 중심으로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을 작업협력, 종교협력, 이념협력이라는 세 가지 협력유형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업협력, 종교협력, 이념협력의 질서는 배타적이고 배제적이며 갈등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부가해 왔다. 이러한 배제적이고 갈등적 요소가 바로 협력문명의 기반을 위축시키거나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협력문명의 형성과 해체의 과정을 세 가지 사회적 기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같은 문명사적 순환의 과정에서 우리 시대 새로운 협력문명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문명의 순환: 집중과 분산, 그리고 협력

인류의 문명은 부와 자원과 권력이 점점 더 집적되고 집중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되는 '집중문명'의 경향이 거대서사를 이루고 있다. 다른

2)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17면.

한편으로 인류의 문명사는 부와 자원과 권력을 공유하고 분산시킴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약화시키는 '분산문명'의 경향이 다른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류의 문명사는 집중문명과 분산문명이 순환하는 '이중순환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근대 세계의 사회변동은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상업적 단계에서 산업적 단계로,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에서 오늘날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축적과 독점이 강화되는 경향이 거대 사회변동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인류의 문명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인류문명의 '집중화' 경향이 응축되어 있다. 원시 종족적 사회에서 고대국가의 문명 공동체로의 발전, 종교권력으로 통합된 중세를 거쳐, 근대 국민국가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은 재화와 자원의 집중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집중화라는 거대경향을 드러냈다. 근대사회구성체의 국가주의 정치질서에서 더 나아가 자본의 지구적 집중화를 가능하게 한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는 오늘날 집중화된 인류문명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인류문명의 오랜 집중화경향과 함께 글로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가운데 국가주의 정치가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는 문명사적 특징을 포괄해서 '집중문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3] 지구화라는 거대 프레임으로 본다면 이 같은 인류 문명의 집중화경향은 종족적, 일국적 수준에서 오늘날 지구적 수준으로 고도화된 셈이다.

집중문명화의 궁극적 동력은 인류문명의 물질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화석연료의 확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화석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석유, 석탄, 철강 산업과 화석자원의 수송을 위한 철도, 항공, 선박 산업은 인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은 에너지 자원과 자본의 집중화 경향을 주도했다. 특히 근대 산업사회에 와서 자원과 자본의 집중화 경향은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착취를 고도화하고 마침내 국가 간 침략과 약탈로 인한 전쟁과 분쟁

3) 조대엽, 「분산혁명의 시대: 생활민주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정치의 실천과제」, 『현대문명의 위기: 공생의 대안문명을 찾아서』, 나남, 2014a, 448면.

을 확산시켰다.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탈영토주의의 거대 경향은 지구적 수준에서 자본의 집중화와 부의 극단적 편중현상을 가속하고 있다. 집중문명의 극단적 경향 속에서 분열과 갈등, 경쟁과 적대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현실이자 질서가 되고 말았다.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수송하는 산업기반 자체가 이미 지구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일이지만,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인류의 삶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상승시켜 오늘날 지구 생태계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대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2-3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해수면이 약 30센티미터 내외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국제분쟁이 늘어나게 하고, 생물종의 3분의 1이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를 예견하게 한다. 이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들은 탄소포화점에 이르는 2030년을 인류문명의 갈림길로 보는 한편, 2050년을 문명과 생태계의 1차 붕괴 시점, 2100년을 2차 붕괴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4] 지구생태의 재앙은 무엇보다도 인류문명의 고도화된 집중경향이 드러내는 사회적 불평등과 위계적 삶의 현실과 결합되어 있다.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자연자원의 무모한 채굴, 그 가운데서도 화석연료의 확보를 위한 경쟁은 고도로 집중화된 문명을 만들었고 이러한 집중문명은 부와 권력을 편중시켜 사회적 불평등과 위계적 질서를 강화시켰다. 이제 이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질서는 경쟁과 효율의 가치, 갈등과 폭력적 분쟁을 수단으로 스스로를 확장하며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산업은 다시 지구생태계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인류문명의 재앙은 무엇보다도 집중문명의 극단화에 배태되어 있다. 집중문명의 비극은 인류를 지구 종의 멸종과 생태파괴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다. 사회생태주의 시각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결국 인류의 문명사적 위기는 구조화된 인간 삶의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없는 경쟁과 분쟁, 적대를 만드는 이익추구의 질서, 말하자면 고도로 집중화된 정글의 질서가 만

4) IPCC,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AR4)*, IPCC, 2007;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AR5)*, IPCC, 2013.

드는 파괴적 삶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집중문명의 초거대 서사와 함께 새로운 대안문명의 가능성은 현대문명의 집중화가 드러낸 파괴적 삶에 대한 성찰에서 찾아지고 있다. '3차 산업혁명론'과 '분산자본주의론'[5], '자연자본주의론'[6], '영성자본주의론'[7], '생명자본주의론'[8], '자본주의 4.0'[9] 등 새로운 자본주의질서에 대한 거대담론에는 공감과 공생, 협동과 평화, 생명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권력과 자원의 분산적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10] 제레미 리프킨은 분산자본주의의 가능성을 재생가능 녹색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의 민주화'에서 찾고 있다.[11] 이처럼 집중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체계는 무엇보다도 사회생태적 질서의 '분산화'에 있다는 사실이 다양하게 예견되고 있다. 인류문명을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집중문명의 시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수준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산문명'에 눈을 돌려야 하고 오늘날 다양하게 시도되는 분산적 삶의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협력문명은 분산문명의 다른 표현이다. 동시에 분산의 질서는 협력의 질서를 동반한다. 부와 자원과 권력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집단, 나아가 다양한 지역에 공유되고 분산된 사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공존하는 사회다. 협력과 연대의 가치야말로 부와 자원과 권력을 분산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사회적 공존의 필수조건이다. 협력적 사회는 협력문명이 구현된 정치, 경제, 시민사회의 질서를 포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협력'은 사회구성원들이 문제의 해결과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구성원들이

---

5)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6) Paul Hawken, Amory Lovins and L. Hunter Lovins,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9.
7) Patricia Aburdene, *Megatrends 2010: The Rise of Conscious Capitalism,* Hampton Roads Publishing Company, 2007.
8) 이어령, 『생명이 자본이다: 생명자본주의 생각의 시작』, 마로니에북스, 2014.
9) Anatole Kaletsky,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ew York: Public Affairs, 2010.
10) 조대엽, 앞의 글, 2014a, 449면.
11)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653면.

자신들의 사회적 조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협력의 의미를 이처럼 넓게 보면 인류의 협력문명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협력에는 강제성이 개입될 수 있다. 부와 자원과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원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협력의 질서로 편입시키는 방식은 강제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배제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차원에서도 배제적 협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는 인류문명사에서 다양한 방식의 강제된 노동과 억압적 협력을 구현해 왔다. 고대 국가의 노예노동과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독재적 동원체제는 배제적 협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제적 협력은 동원된 협력이며 수동적 협력이다. 이와 달리 사회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사회적 배제 없는 질서를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화적 협력의 질서를 '포용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적 협력 또한 개인과 집단에도 적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구조와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구축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동반적인 협력이자 공존적 협력의 질서를 의미한다.

인류의 문명사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분업의 확대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별분업과 지역적 분업에 이어 직업의 분화와 작업의 분화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분업의 고도화와 복잡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업은 협력질서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제도화된 분업의 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과 조직은 협력의 이상과 가치, 자아 실현적 공동성 없이 원자화된 협력의 질서에 포섭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협력을 '기계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가치와 연대, 자아실현적 공존의식을 기반으로 추구되는 협력을 '가치적 협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협력의 의식성이나 협력의식의 수준에 따라 기계적 협력과 가치적 협력을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문명의 집중화경향은 협력문명의 쇠퇴를 가져왔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도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에 인류문명의 분산화경향은 새로운 협력문명의 출현과 성장을 추동했고 포용의 질서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약화시켰다. 인류에 내재된 협력의 유전자는 포용적이고 가치적 협력의 문명을 거듭

해서 태동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협력문명은 자원과 권력의 집중화에 따라 강제적이고 배제된 협력의 질서로 곧바로 전환됨으로써 반협력과 분열의 문명을 드러냈다. 이 같은 질서의 한 축이 기계적 협력의 질서로 자리 잡았다. 인류의 문명사는 집중과 분산의 이중서사이며 그 드러나지 않은 중심에 협력문명의 순환이 내재되어 있다.

3. 제 1의 협력문명과 작업협력의 시대

인류의 문명사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오랜 협력의 전통은 일을 통한 협력이다. 즉, 생존과 생산을 위한 일 혹은 작업을 통한 협력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갖는다. 이것을 '제 1의 협력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 채집경제의 협력에서부터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나아가 글로벌 시장경제와 네트워크 경제에서의 작업협력에 이르기까지 일을 통한 협력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긴 협력의 시대'를 만들었다.

작업협력의 가장 원초적 형태는 동물들의 본능에서 발견된다. 새가 둥지를 만들거나 수달이 둑을 쌓을 때, 거미나 꿀벌, 개미가 집을 짓는 데는 협력적 노동이 수반된다. 작업협력의 본능적이고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들의 이 같은 작업협력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고 본능적이고 원초적 수준의 생물학적 반복에 머문다. 인류의 작업협력은 오늘날 정보기술혁명으로 네트워크화된 글로벌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했다. 작업협력의 진화는 인류의 협력적 노동이 동물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협력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차이에 따른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간노동을 다른 동물의 노동과 구분해주는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거미는 방직공과 비슷한 작업을 하고, 꿀벌의 집짓는 솜씨는 많은 건축가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가장 미숙한 건축가가 가장 뛰어난 꿀벌과 구별되는 점은 실제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머릿속에서 그 구조를 미리 구상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노동과정의 끝에는 작업을 시작할 때 노동자의 상상력 속에 이미 존재하던 결과가 나타난다. 그는 작업하는 원료의 형태를 변환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

> 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방식에 법칙을 부여하고 자신의 의식을 여기에 종속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12)

인류의 작업협력은 다른 동물의 본능적 노동과 달리 인간노동이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작업협력의 문명사적 방식은 협력의 규모와 협력의 내용, 협력의 절차를 점점 더 세분함으로써 '분업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인간노동의 의식성과 합목적성은 인간노동의 본질적 요소이자 인간노동에 내장된 유전자적 특징이다. 따라서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인간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협력의 질서 또한 인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시인류의 수렵채집 방식은 작업협력의 원시적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구석기시대의 작업협력은 성별협력의 구조로 남성은 수렵을 주로 하고 여성은 야생의 곡식과 열매를 채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시대에는 경작과 농업, 소규모의 목축이 시작되었다. 여자들은 식물을 재배하고 남자들은 가축을 무리로 길렀다. 정착된 농경이 시작되고 일정한 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목축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착촌이 중동, 인더스 계곡, 중국 등지에서 나타났다.13) 남성들은 목축을 주로 했고, 여성들은 그릇을 만들어 곡식을 저장했다. 신석기 시대에 단지, 통, 바구니 같은 용기가 발명되었던 것이다. 원시적 작업협력이 성별협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편 집이나 카누, 그물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보다 많은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원시적 작업협력은 원시적 분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시적 분업이 전문화된 분업은 아니었다. 성별분업도 남성이나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을 서로 능숙하게 할 수도 있다. 더 복잡한 사회가 되면 하나의 직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직종별 분업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누군가 쇠를 다루는데

12) Karl Marx, *Capital*, vol.I, Moscow, p.174;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1987, 47-48면 재인용.
13)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239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여성이 그릇을 만들거나 천을 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직종이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여성이 진흙을 모으고 다른 여성이 모양을 만들고 또 다른 여성이 그것을 굽는 식의 직종 내적 분업을 찾아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14] 이 같은 직종에 따른 분업적 협력방식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것으로 이른바 '사회적 분업'이라고 말하는 분업적 협력의 방식이다. 작업협력의 문명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분업을 통한 협력으로 진화했다. "동물은 단지 자신이 속한 종의 규준과 욕구에 따라 무언가를 만들지만 인간은 모든 종의 규준을 따라 생산할 수 있다."[15] 인간은 방직, 고기잡이, 건축 기타 수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사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종에 따른 사회적 분업이 불가피하다.[16] 이 같은 사회적 분업은 사회적 협력의 다른 얼굴이다.

신석기 시대 원시적 수준의 사회적 분업을 통한 경작과 목축으로 먹고 남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자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비록 잉여생산물과 함께 불평등과 가족, 권력의 문제가 등장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신석기 시대가 인류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행위는 신석기 시대의 핵심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다.[17] 인류문명에서 경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고 헤아리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었다. 사냥은 약탈일 수 있지만 경작은 공생의 의미를 가졌다. 초기 경작의 느슨한 생태환경 속에서 유기체들의 상호의존성은 강화되었고 인간의 직접 개입은 생산성과 창조성의 진정한 조건이었다.[18] 사회적 협력은 필요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게다가 식물과 동물을 돌보고 기르는 행위는 아이를

14) Melville J. Herskovits, *Economic Anthropology: A Study in Comparative Economics (2nd ed),* New York: Knopf, 1960, p.126.
15) Karl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New York, 1960, p.113; 해리 브레이버맨, 앞의 책, 재인용.
16) 해리 브레이버맨, 앞의 책, 70면.
17)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240면.
18) Lewis Mumford, *The Myth of the Machine: Technics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Harvest Books, 1967, p.146.

키우는 데 영향을 주었다. 마을이 세워져 보호 받을 수 있고 지속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지켜주고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다. 인간이 가진 공감의 능력을 확장시켰고 협력의 효과가 부각되었다.

작업협력의 방식에는 자발적 협력과 강제된 협력이 있다. 강제적 협력의 분명한 예는 노예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고대국가의 작업협력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제적 작업협력은 무엇보다도 고대제국의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노동력의 통제로 가능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고대 도시의 광범한 도로망, 수로, 관개용 운하, 거대 건축물, 기념비, 대사원 등은 강제된 작업협력의 증거다. 최초로 도시 형태의 관개 사회를 세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차지한 수메르인이었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운하와 둑을 쌓고 유지하는 데 강제 동원되었다. 이와 동시에 곡식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했다. 광부, 건축가, 기술자, 회계사, 연금술사 등 역사상 최초로 전문화된 노동력이 여기서 등장했다.[19] 전문화된 기술력과 단순 노동력의 결합,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고대적 형태의 통제되고 동원된 작업협력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 같은 고대국가의 강제적 작업협력은 부자유한 노예노동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종교적, 군사적, 생존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작업협력의 내용과 다르다. 중세의 길드체제만 해도 자본주의적 작업협력의 체제와는 전혀 달랐다. 중세의 길드를 구성하는 개별 작업장은 대개 7년간 계약을 맺는 도제, 3년간의 계약으로 일하는 직인, 그리고 이 조직을 소유한 장인으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된 작업협력의 체제였다. 적어도 중세 장인의 작업장에서 작업협력은 장인에 대한 도제와 직인의 복종에 기초해 있었다. 자신들이 모시고 일하기로 계약한 장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대의 관습이었다. 가내공업의 후기에 가족집단이 모직물업자에게 통제될 때에도 일

19)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241면.

정한 형태와 일정한 양의 직물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조건 안에서만 통제되었다. 도시지역에서 대공장의 형태로 근대산업집단이 형성되면서 작업협력의 모든 과정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적어도 자본주의적 작업협력의 질서는 작업장 내 분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직종 간의 사회적 분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철저히 자본의 이윤을 증식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노동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응용하는 운동이 출현했다. 테일러리즘으로 알려진 '과학적 관리'였다. 노동과정의 분절화를 통한 노동시간의 관리와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테일러리즘은 노동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의 기능을 완벽하게 분리해냄으로써 노동과정을 철저히 탈숙련 단순노동으로 전락시켰다. 협력문명의 맥락에서 볼 때 작업협력의 방식은 근대산업사회에 와서 과학적 관리를 통해 협력의 질서를 내재적으로 해체하는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작업협력의 시대를 연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테일러리즘은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를 거치면서 우리 시대에 분절된 작업협력의 극단적 형태를 드러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작업협력의 질서를 훨씬 더 분절적이고 해체적으로 만들었다. 인간노동의 독특한 성격이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데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점점 더 먼 옛일이 되었다. 분절되고 해체된 노동은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생계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가짐으로써 봉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만이 중요해진 것이다. 노동의 쇠퇴는 작업협력의 극단적 쇠퇴에 다름 아니다. 제 1의 협력문명이 극단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4. 제 2의 협력문명과 종교협력의 시대

원시종족에게 모든 사물은 정령의 구현체였다. 비, 바람, 바위, 태양, 달, 그리고 그 외의 만물에는 정령의 힘이 깃든 것으로 여겨졌다. 씨족이나 부족의 형태로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집단이 만드는 격렬한 상호작용과 상호자

극은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인지되었다. 원시의 종족들에게 이 힘은 개인들보다 우위에 있고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외재적'이고도 '구속적'인 힘으로 느껴졌다. 이 힘이야말로 보다 확대된 정령적 존재로 느껴졌고, 여기서 일상적이거나 세속적인 세계의 활동과 구별되는 '신성한 영역'에 대한 최초의 인식이 있었다. 원시적 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힘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내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표출된 힘을 상징하는 동물과 식물이 '토템'으로 구체화되고 나아가 '숭배집단'(cult)이 조직되었으며 토템과 집단적 신성성을 지향하는 '의례'(ritual)가 발전되었다.[20]

종교는 '신성한 것'과 관련된 믿음과 실천의 통일된 체계다. 그리고 종교는 이러한 믿음과 실천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통합시킨다.[21] 종교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는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의 출현, 숭배집단의 조직, 신성한 존재의 힘을 표현하는 토템을 향한 의례와 의식의 수행 등이다. 에밀 뒤르껭은 원시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토템의 숭배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한다. 토템의 숭배, 즉 원시적 종교는 집단의 상호작용과 종족의 집합적 조직이 만든 힘의 물리적 상징화에 불과했다.[22] 뒤르껭의 시각으로 보자면, 종교의 본질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씨족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다. 나아가 종교의 기능은, 첫째로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의 욕구와 행위를 규제하고, 둘째로 숭배집단의 의례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집합체에 결속시키는 것이다.

종교의 기능은 '규제'와 '결속'이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종교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신성한 것을 숭배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의 유지와 존속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종교는 사회적 협력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종교적 공감의 확대는 종교를 통한 결속의

20) 조나단 터너 · 레오나드 비글리 · 찰스 H. 파워스, 『사회학 이론의 형성』, 일신사, 1997, 415면.
21)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47[1912], p.47.
22) 조나단 터너 · 레오나드 비글리 · 찰스 H. 파워스, 앞의 책, 416면.

범위를 넓히고, 이 같은 결속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협력의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종교는 가장 원초적이고 외재적이며 강제적인 협력의 수단인 셈이다. 작업협력의 문명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목적합리적인 노동이 만드는 제 1의 협력문명이다. 따라서 작업협력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적 노동이 발현시키는 협력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요소로 출발하는 협력의 질서다. 종교협력의 문명은 세속적 삶의 바깥에 위치하는 신성성이 삶을 규제하고 결속하는 외재적 협력의 질서다. 인류의 문명사적 맥락에서 종교적 협력은 원시인류의 작업협력과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된 원시종교에서부터 기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 2의 협력문명'이라 할 만하다.

고대세계에서 모든 현상은 영이 깃든 것이었기 때문에 삶은 전적으로 외부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기 이전까지 인류는 이른바 수많은 자연신에 의존했다. 인류 역사에서 관개문명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있었다. 중동, 인도,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과 계곡을 따라 흩어져 있던 관개사회가 무력과 정복으로 병합되어 거대한 왕국을 낳으면서 강력한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구축했다. 천문학과 수학, 정교한 책력으로 자연의 신비를 알고 이를 실용화함으로써 고대의 제국을 이루었다. 관개사회로 전환하면서 인류의 신은 생장과 풍요의 신에서 해와 달과 별 등 하늘의 신으로 옮겨 갔고, 마침내 태양신으로 단일화되었다. 관개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고대 제국의 왕은 갈수록 신의 성격을 띠었고 결국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의 관개문명은 모두 신정국가였다. 신성한 왕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전능한 천상의 질서와 동일시함으로써 지상에서 왕국을 다스려야 할 합법성과 권력을 확보한 것이다.[23] 고대의 노예노동에 기초한 거대 건축물이나 대사원은 이 시기 강제적 작업협력의 질서에 종교협력의 질서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동쪽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르는 거대한 관개문명에

23)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250-254면.

서 보편적 신은 갈수록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유일신 사상과 세계 주요 종교 탄생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가 세계종교의 싹을 틔운 것이다. 이 같은 세계종교는 모두 관개문명과 그 주변에서 출현했다.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통상과 무역이 확대되었으며 서로 다른 민족이 복잡한 사회단위로 통합되면서 불어난 인구는 전통적인 부족의 순수성을 위협했다. 강제이주와 전란의 소용돌이, 왕국과 제국으로의 병합 등으로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정체성은 해체되었다. 리프킨은 세계 종교적 공감의 물결이 처음 태동한 것은 문명의 탄생이라는 산고가 초래한 인간의 깊은 고통 속이었다고 말한다.[24] 인류 문명의 유사한 시기에 관개문명의 주요 지역에서 세계종교가 출현한 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사적 정체성의 위기가 만든 효과일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갈망, 나아가 결속과 협력적 공존에 대한 갈망이 세계종교를 출현시킨 것이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찾은 것은 모세가 안고 온 하나님의 십계명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상 최초의 도덕률[25]이라고 부르는 십계명의 핵심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다. 유대교 랍비인 힐렐은 탈무드에서 이 점을 똑같이 강조한다. "네가 싫어하는 것은 네 이웃에게도 행하지 마라. 토라에 적힌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26]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공자는 중국에서 이와 다르지 않은 윤리를 설파했다. 주지하듯이 공자가 추구하는 완성된 인간은 군자다.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를 깨우쳐야 하는데 도는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가질 때 찾아진다. 그래서 공자는 인(仁)이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야 하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자 하면 남부터 뜻을 이루게 하는 것"[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이라고 했다.[27] 또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己所不慾 勿施於人]고도 했다.[28] 5세기 인도에서 고타마 싯다르타

24) 같은 책, 266면.
25) Erich Kahler, *Man the Measure: A New Approach to History*, Cleveland: World Publishing Co., 1967, p.68.
26)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267면 재인용.
27) 『論語』 雍也.

는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동정의식을 촉발시킬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삶을 억누르고 거부하면서 삶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두루 관계를 갖고 그들을 깊이 느낌으로써 삶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29] 불교의 자비사상이다.

로마제국에서 시작된 초기 도시 기독교공동체는 신도들 간에 애정과 친교가 특별했다.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모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통해 가족 같은 유대감을 가지고 남다른 우애를 나누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형제요 자매였다. 예수 안에서 인간은 혈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심지어는 가장 비천한 인간에게까지도 공감의 폭을 넓힌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말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내주어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30]

유대교,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세계종교의 사상은 가장 광폭의 협력사상이다. 영적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현실의 불안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인륜적 공동체의 협력적 질서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세계종교의 황금률로 제시된 것이다. 이 같은 황금률은 동일한 종교공동체 내에서 강력한 협력의 질서를 구축했다.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권력은 수천 개의 봉건영토로 나뉘어졌다. 상업은 위축되고 유럽은 농촌기반사회로 되돌아갔다. 봉건영주는 땅에 매인 농노들을 부려 장원을 지배했다. 암흑기였다. 도시생활은 붕괴되었고 문맹률이 높

28) 『論語』 衛靈公.
29)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275면.
30) 예수의 산상수훈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지고 학문은 쇠퇴했다. 생활은 폐쇄적이 되었고 사람들은 계곡과 산속의 요새에 갇혀 살았다. 생활은 불안하고 즐거울 일도 없고 나아질 가망도 없었다. 암흑기였다. 이 암흑기에 모든 사람은 교회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있었다. 봉건질서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교부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면 영원한 구원과 더 나은 삶을 기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요되었다.[31] 기독교의 시대였고 기독교적 헌신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결속을 이루었다. 중세의 기독교는 종교권력이자 정치권력이었다. 영주와 성직자, 기사를 제외한 농노와 반자유민들을 협력의 질서로 강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권력이 된 것이다. 중세의 종교는 협력사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종교는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되는 '종교를 위한 협력의 질서'를 구축했다.

종교개혁은 근대적 이성의 시대를 향한 종교적 변화였다. 자유와 평등의 사상,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윤리가 중세적 종교권력을 해체시켰다. 시민은 종교권력과는 뚜렷이 분리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시대에도 여전히 정치권력과 분리되지 않는 종교권력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는 한편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세속화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개인화와 해체화, 사회적 균열이 가속화되는 거대경향 속에서 종교적 협력의 여지도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5. 제 3의 협력문명과 이념협력의 시대

17, 18세기는 인류의 또 다른 문명사적 전환기였다. 이른바 계몽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지하듯이 계몽주의는 인간이성의 힘으로 자연과 인간관계, 사회와 정치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계몽의 정신은 천부인권과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강조했고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봉건군주와 로마가톨릭교회의 족쇄로부터 인간이성의 해방을 주창했다.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적 세계관으로 자연과 사회를 설명하고 자유, 관용, 자율, 인권,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질서

31) 제러미 리프킨, 앞의 책, 321-322면.

를 재구성했다. 말하자면 계몽사상은 오랜 봉건주의와 절대왕정, 로마 가톨릭교회의 절대 진리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거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계몽사상은 17, 18세기 시민혁명을 이끈 정신적 동력이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혁명, 18세기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듭된 시민혁명은 계몽사상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자유,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근대 계몽사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인간이성 중심의 사회구성은 신성의 영역이 규율했던 종교적 협력의 문명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새로운 질서였다. 신성성이라는 외재적 힘에 의한 종교협력의 문명은 이제 계몽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내재적 힘으로서의 이성이 주도하는 협력문명의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신성성이 규율하는 종교협력의 문명은 인간이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으로서의 이념협력의 문명으로 전환되었다.

사회과학의 개념사적 전통으로 보면 이념(ideology)은 '허구적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1845년 저술 『독일이데올로기』는 헤겔철학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적 전복을 시도하는 저작이다. 마르크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순진하고 유치한 공상이야말로 청년헤겔학파 철학의 핵심이다"라고 했다.[32]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순진하고 유치한 공상'인 셈이다. 마르크스에게 이데올로기는 기만과 거짓의 체계다. 이른바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도덕, 종교, 철학, 법, 국가, 정치 등은 이데올로기의 여러 형태들로서 토대의 진실을 은폐하는 허위의식의 체계들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론의 지적 계보는 프랑스 계몽사상가 엘베티우스(Helvetius)와 홀바하(Holbach)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종교를 편견, 미신, 허위의식의 근원이며 종교를 운영하는 사제계급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음모로 보았다.[33] 따라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데올로기로서의 사제기만이론으로 간주한 것이다.

종교협력문명을 넘어선 근대적 정치경제질서를 이념협력의 문명이라고 할

32) Karl Marx,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33) 송호근, 「이데올로기의 사회학」, 『계간 사상』 겨울호, 사회과학원, 1990, 50면.

때 여기서의 이념은 '이성'에 기반을 둔 '이상'에 가깝다. 즉 이념은 현실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념화는 이념이 현실의 질곡을 가리는 과장된 정치적 포장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의식론의 연속에 있다. 그러나 이념은 완전한 허구와 기만의 체계로서의 종교 관념과는 달리 인간적 현실을 근거로 인간적 현실을 포장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포괄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17, 18세기 계몽사상과 시민혁명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유주의, 19세기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정치이념들, 17세기 이후 민족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 이념은 종교협력의 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념협력의 질서를 가능하게 했다. 이념적 공감과 이념적 결속은 이념적 협력의 질서를 확장함으로써 '제 3의 협력문명'으로서의 이념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자유주의 이념은 계몽사상으로부터 출현해서 시민혁명을 통해 구체화된 사회철학이자 정치이념이다. 모든 사회윤리의 핵심을 개인의 권리에 두는 자유주의는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봉건적 정치사회를 구성했던 왕권신수설이나 지위의 세습, 종교통치를 부정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모든 사회질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와 법에 의해 모든 시민의 권리와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특히 자유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로운 시장질서의 핵심윤리로 강조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부의 간섭과 시장의 독과점을 부정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로서의 경제체제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경제 질서의 근간이다.

자유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협력의 질서는 개인에 기반을 둔 협력의 질서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협력의 질서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합의한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이 같은 합의와 사회계약은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에 기초한다. 자유주의 이념은 사유재산

의 보호와 이를 위한 계약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로운 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계약의 당사자인 각 개인의 입장에서 적어도 호혜성의 원칙이 성립해야만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다. 적어도 자유주의의 이념적 협력의 질서는 자유계약과 상호성, 나아가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협력의 질서인 셈이다.

다른 한편, 자유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질서를 지탱하는 부르주아의 계급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시민혁명을 추동했던 저항적 협력의 이념이었지만 시민혁명의 성공과 근대적 입헌체제의 성립과 함께 어느덧 부르주아의 지배이념이 되고 말았다. 부르주아의 지배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계약을 매개로 성립하는 협력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과 계약의 조건을 갖지 못한 피지배적 약자들은 이 같은 협력의 질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배제는 적어도 수동적이거나 억압적인 협력의 질서로 피지배계층을 포섭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은 수많은 수정과 변형을 거치며 다양한 협력의 형태를 만들었다.

19세기 들어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자본주의 성장은 노동계급을 양산했고 이들의 궁핍화는 조직적인 계급행동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전반에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19세기 후반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운동으로 광범하게 조직화된 노동계급운동은 19세기를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시기로 만들었다.[34]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은 사상사적으로는 오웬(R. Owen), 생 시몽(Saint Simon), 푸리에(J.B.J. Fourier)등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사유재산의 철폐와 재산의 공유주장으로 시작되었다. 엥겔스(F. Engels)는 이 같은 초기 사회주의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로 구분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회주의 사상을 포괄하지만 19세기 이후 사회주의운동은 마르크스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대한 거부에

34) 조대엽,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참여연대의 시대」, 『감시자를 감시한다』, 이매진, 2014b.

서 출발한다. 정치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함께 구체화되었는데 권력과 부의 집중, 불균등한 기회, 기술과 자원의 불평등한 이용 등을 낳는 사적 소유의 구조를 철폐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지향한다. 사회주의 이념은 사회구성방식에 있어서 '공공성'과 '사회화'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생산과 소비의 공공적 협력의 질서는 무엇보다도 계획경제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지향에서부터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 이에 따른 사회주의운동의 흐름 또한 급진적 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는가하면 의회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분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회주의운동에서부터 공유되는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공동체, 경쟁보다는 연대와 공존, 엘리트보다는 노동자대중이 사회구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이념의 협력적 질서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념협력의 질서인 셈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있어서 협력적 질서의 핵심단위는 계급이다. 계급협력은 도덕적이거나 정신적인 단결, 결사, 연대 등을 넘어서는 계급적 결속의 현실적 조건들이 강조된다. 예를 들면 노동자 수의 증대, 도시와 공장의 공간적 밀집,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생활조건의 동질화 등은 노동자 계급협력의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35] 노동자 계급협력의 제도적 조건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계급정당이다. 현대 사회주의운동은 노동조합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 노동계급의 결집은 노동조합을 통해 가능했으며 계급정당의 기반 또한 노동조합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든 계급정당이든 대부분은 부르주아 지배질서에 통합되어 있다. 일종의 헤게모니적으로 통합된 질서인데, 말하자면 부르주아 지배질서의 협력적 구조라는 것은 노동계급이 자유주의 이념의 질서에 헤게모니적으로 통합된 협력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내적 연대가 강화됨으로써 이 같은 헤게모니적 협력의

35) 강수택, 『연대주의: 모나디즘 넘어서기』, 한길사, 2012, 73면.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배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부르주아의 계급이익과 패권적 민족주의, 이에 동원된 군사력이 결합되어 기형적 정치이념으로서의 파시즘이 등장하기도 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유럽의 사회경제적 불안은 1차 세계대전을 유발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거듭되는 만성적 공황과 정치, 사회적 불안은 20세기 전반기를 파시즘의 시대로 만들었다. 19세기에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성장은 빈곤과 노동문제를 증폭시킴으로써 사회주의운동과 노동계급운동을 광범하게 확산시켰다. 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징후들이 이른바 국가사회주의로서의 파시즘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조건에서 등장한 파시즘의 득세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된 효과이며 그것은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이 시기에는 19세기 후반의 사회주의운동 이래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러시아혁명이 성공함으로써 동유럽에 거대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적어도 20세기에 주목한다면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20세기 전반부는 사회주의 정치질서, 파시스트 정치질서, 그리고 17, 18세기 시민혁명 이래 부르주아 정치질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 등을 등장시킨 거대한 정치실험의 시대였다.[36]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의 서로 다른 모습이 갖추어지는 시기였던 것이다. 이념협력의 시대는 20세기에 들어 근대적 국가이념의 시대라는 모습을 갖추었다.

제 3의 협력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협력의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와 동구로 나뉘어 좌우의 격렬한 이념대결이 시작됨으로써 '냉전'이라는 새로운 대결의 시대를 맞았다. 좌우 양진영의 체제경쟁은 군비증강을 불렀고 전쟁의 위협, 나아가 핵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이념내적 협력의 질서는 이념 간 극한의 대결구조로 전환되고 말았다.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결집된 동서 양 진영은 강력한 이념으로 무장된 국가주의 동원체제를 구축했다 동서 각 진영은 내적으로는 강력한 협력의 질서를 구축했지만 진영 간에는 대결의 질서를 드러냈던 것이다. 20세기 말 이후 동구 사회

36) 조대엽, 앞의 글, 2014b.

주의의 몰락과 함께 세계질서는 탈냉전, 탈이념의 시대를 맞았다. 비록 이념 협력의 질서가 20세기 후반 냉전기를 맞아 이념 간 대결의 질서로 전환되었지만 오늘날 탈냉전과 탈이념의 시대는 협력과 결속의 장치로서의 이념이 사라진 분열과 해체의 시대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시장질서는 이념적으로 결속된 대부분의 협력적 질서를 파괴했다.

6. 결론: 제 4의 협력문명과 '가치협력'의 전망

문명사적 맥락에서 인류의 새로운 협력문명은 기존의 협력질서가 와해되면서 나타났다. 당대의 지배권력과 피지배 대중의 삶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대중의 질곡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협력문명은 태동했던 것이다. 작업협력문명, 종교협력문명, 이념협력의 문명은 그렇게 출현해서 그렇게 쇠락했다. 물론 이 같은 새로운 문명의 순환은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는 식의 순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협력문명이 변형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약화된 가운데 새로운 협력문명이 추가적이고 누적적으로 전개되었다.

인간의 본원적 특징으로서의 '의식적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작업협력문명은 노예노동의 강제적 동원을 기반으로 했던 고대제국에서 자생성을 잃고 강제된 협력으로 변질되었다. 지배귀족과 피지배 대중의 삶이 극단적으로 분리되고 대중들의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 세계종교의 초기 사상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종교협력의 문명이 싹을 틔웠다. '성'과 '속'을 구분하기 시작한 원시종교 이래 종교협력의 문명은 이어졌으나 보다 보편적인 종교협력의 출현은 로마제국의 황혼기에 오늘날 세계종교가 된 신앙체계의 숭고한 인류애적 협력에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협력의 문명 또한 중세의 가톨릭과 같이 거대 종교권력에 복속됨으로써 오로지 종교적 권위에 순종하는 강제된 협력의 질서만이 남게 되었다. 신성한 것이 대중의 삶을 삼켜버리고 협력은 오직 권력의 통제로 남았던 것이다. 강제된 껍질로 남은 종교협력의 문명은 이성의 시대를 맞으며 이념협력의 문명을 태동시켰다. 자유주

의와 사회주의의 다양한 이념적 정파들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국가건설, 선거를 통한 집권의 경쟁 등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이념내적 협력 체제를 갖춘 냉전의 시대로 돌입했다. 20세기 말 냉전이념의 해체는 이념협력의 시대를 무너뜨린 시장의 힘에 따른 것이었다. 이념협력은 단일이념으로 동질화된 국가권력질서를 만들었고, 이념내적 결속과 협력의 과도한 제도화는 이념 간 대결과 적대를 첨예화했다. 동구의 붕괴와 함께 이념의 외피가 벗겨진 시장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념의 시대는 이익의 시대로 바뀌었다. 시장과 이익의 시대는 냉혹한 정글의 질서를 지구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광폭한 양극화와 축소된 일자리로 시민의 삶을 비참하게 팽개쳤다.

결국 이 같은 인류 협력문명의 전환기에서 우리 시대의 사회변동은 사회경제 구조의 위기와 정치적 통합의 위기, 사회적 결속의 위기, 삶의 패러다임의 모호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갈등과 균열을 일상화하는 한편 갈등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갖게 했다.[37] 20세기 말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술담론들은 무엇보다도 이념협력문명의 해체를 반영하고 있다. 성찰적 근대(reflexive modernization)[38], 위험사회(risk society)[39], 해체, 균열, 인정투쟁[40], 투명사회(transparent society)[41], 네트워크사회[42], 사회운동사회(social movement society)[43] 등의 비판적 사회이론들은 근대적 이념협력의

37) 조대엽,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2014c, 38-39면.

38) 앤소니 기든스・울리히 벡・스콧 래쉬,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울리히 벡, 『정치의 재발견: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 거름, 1998;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자유의 아이들과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민주주의』, 새물결, 2000.

39) Ulrich Beck,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2.

40)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41) Gianni Vattimo, *The Transparent Socie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42) Manuel Castell,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 2004.

43) Sidney G. Tarrow, David S. Meyer,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1998.

질서가 재편됨으로써 나타나는 갈등과 해체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44]

이제 우리 시대의 확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위태로운 일과 노동의 세계, 불안하고 쫓기는 사회라는 견딜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 4의 협력문명을 갈망하고 있다. 종교협력과 이념협력의 강제된 외피를 벗어버린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는 실존적 삶의 문제다. 계급, 민족, 국가 등 근대 산업사회의 근본적 사회구성요소와 관련된 이슈를 넘어 일상의 삶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공공성의 위기를 수반하는 이른바 자율화, 민영화의 정책 경향이 드러내는 일상적 삶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것들—경, 노동, 교육, 주택, 보건의료, 전기, 물, 통신, 교통 등—과 함께, 정체성이나 문화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성, 장애, 문화, 여가, 예술, 건축, 소비, 민족성, 지방민주주의 등—이 있다. 이 같은 이슈들은 일상의 삶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의 문제들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삶을 배제시키고 해체하는 공적 질서에 있다. 우리 시대의 사회구성요소에 기존의 이념과 제도로는 끌어안을 수 없는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증대한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의 근원에 수없이 다양한 삶의 영역과 수없이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질서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서로 다른 수많은 '생활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생활가치를 공존적이고 협력적 질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협력문명의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가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대한 신념이나 감정의 체계다. 수많은 주관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주관적 가치들은 역사적으로 현실에 대한 의미가 공유되고 누적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집단적 의식,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이 종교나 이념이라는 일원적 질서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성이 증대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유된 생활가치에 기반을 두고 가치로 결속된 협력의 질서가 요구된다. 말하자면 종교와 이념의 시대가 지나

44) 조대엽, 앞의 책, 2014c, 63면.

고 '생활'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한 우리 시대는 '생활가치' 중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가치협력의 시대'라 하고 가치협력의 새로운 문명을 기대할 수 있다면 문명사적 맥락에서 '제 4의 협력문명'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치협력문명의 가능성은 분산과 분권적 협력의 질서에서 찾아져야 한다. 적어도 이념협력의 시대는 거대정치이념으로 통합된 동질적 사회로 치달았고 그것은 곧 집중문명의 근대적 효과로 귀결되었다. 제 4의 협력문명으로서의 가치협력의 질서는 새로운 분산문명의 반영이자 우리 시대 '분산혁명'의 실천적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제 4의 협력문명은 제 3의 협력문명으로서의 이념협력의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공공성'의 질서를 생활가치의 결속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공공성'의 질서로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공공성의 질서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에 공적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영역을 가치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공공성'의 시스템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기존의 거대 사회구성영역의 공공적 기능이 분산되고 재구성된 가운데 가치협력의 시대는 생활가치 기반의 협력정치의 시대, 협력경제의 시대, 협력적 자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民硏 RIKS

▮ 참고문헌

강수택, 『연대주의: 모나디즘 넘어서기』, 한길사, 2012.

송호근, 「이데올로기의 사회학」, 『계간 사상』 겨울호, 사회과학원, 1990, 41-79면.

앤소니 기든스 · 울리히 벡 · 스콧 래쉬,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울리히 벡, 『정치의 재발견: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 거름, 1998.

_____,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자유의 아이들과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민주주의』, 새물결, 2000.

이어령, 『생명이 자본이다: 생명자본주의 생각의 시작』, 마로니에북스, 2014.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조나단 터너 · 레오나드 비글리 · 찰스 H. 파워스, 『사회학 이론의 형성』, 일신사, 1997.

조대엽, 「분산혁명의 시대: 생활민주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정치의 실천과제」, 『현대문명의 위기: 공생의 대안문명을 찾아서』, 나남, 2014a.

_____,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참여연대의 시대」, 『감시자를 감시한다』, 이매진, 2014b.

_____,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2014c.

_____, 「그릇 굽는 도공의 마음으로」, 『경사연 리포트』 5월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9.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1987.

Aburdene, Patricia, *Megatrends 2010: The Rise of Conscious Capitalism*, Hampton Roads Publishing Company, 2007.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2.

Castell, Manuel,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 2004.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47[1912].

Hawken, Paul, Amory Lovins, and L. Hunter Lovins,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9.

Herskovits, Melville J., *Economic Anthropology: A Study in Comparative Economics (2nd ed)*, New York: Knopf, 1960.

Honneth, Axel,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IPCC,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AR4)*, IPCC, 2007.

____,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AR5)*, IPCC, 2013.

Kahler, Erich, *Man the Measure: A New Approach to History*, Cleveland: World Publishing Co., 1967.

Kaletsky, Anatole,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ew York: Public Affairs, 2010.
Marx, Karl,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Mumford, Lewis, *The Myth of the Machine: Technics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Harvest Books, 1967.
Rifkin, Jeremy,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Sennett, Richard,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Penguin Books, 2003.
_____,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3.
Tarrow, Sidney G., David S. Meyer,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1998.
Vattimo, Gianni, *The Transparent Socie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Abstract】

The Social Origin of Cooperative Civilization —Exploring the Formation and Deconstruction of Cooperative Community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Cho, Dae-Yop*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social origins of human beings forming a community of cooperation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The core social origin of cooperative civilization can be found in labor, religion and ideology. Humankind has passed through the era of 'working cooperation', 'religious cooperation', and 'ideological cooperation'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The new cooperative civilization has appeared as the existing cooperative order was dismantled. The inequality gap in social life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of the day was extreme, and new cooperation civilization was born under conditions where exclusion and grievance could no longer endure. The civilizations of working cooperation, religious cooperation, and ideological cooperation were formed and dismantled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circulation of civilization. The cycle of cooperative civilization isn't a sequential order of civilization in which a civilization completely had collapsed and a new civilization has appeared. While the existing cooperative civilization has been weakened to extreme or distorted forms, new cooperative civilization has appeared with the additional and cumulative forms. The fourth cooperative civilization that we should open in the new era after the ideological cooperation, what is called the third cooperative civilization, can be expected to be 'value cooperation'.

Keywords: cooperative civilization, working cooperation, religious cooperation, ideological cooperation, value cooperation.

접수일: 2020.01.13.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07.

* Professor, Dept. of Sociology, Korea Univ.